

일본의 우경화 정치에 따른 “Gender Backlash” 담론 연구*

- 학교교육 현장을 중심으로 -

石 橋**
seokhyang70@hotmail.com

<目次>

- | | |
|---------------------------|------------------------|
| 1. 머리말 | 3.2 아베 수상의 교육개혁과 교육재생 |
| 2. 우경화 정치에 따른 젠더 백래시 형성과정 | 4. 교육현장의 젠더 백래시 담론과 영향 |
| 2.1 젠더 백래시 배경으로서의 우경화 | 4.1 가정과교과서의 기술문제 |
| 2.2 고이즈미·아베 내각과 백래시파 각료들 | 4.2 일본군 ‘위안부’ 기술문제 |
| 3. 학교교육 현장에서 젠더 백래시 | 5. 맺음말 |
| 3.1 젠더 백래시 현상 | |

主題語: 젠더 백래시(Gender Backlash), 일본의 우경화(Japanese rightward shift), 학교교육(school education),
교육행정(school administration), 담론(discourse), 일본군 ‘위안부’(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1. 머리말

전후 일본사회는 고도경제성장기를 거쳐 그 후에도 경제성장을 달성해 왔다. 그 반면, 남녀 간의 격차는 대단히 큰 사회가 되어 있다. 이것은 여성차별 문제인 동시에 인권 문제이기도 하다. 이것을 차별이라고 인식하거나 이 결과를 만들어 낸 사회 구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품고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있는 것일까? 한편, 시대 배경의 차이와 국가적인 차이는 있지만 한국사회에 있어서도 일본과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금까지 필자는 전후 일본의 여성정책 및 남녀평등교육(여성학)과 현대 일본사회의 ‘젠더 백래시(gender backlash)’ 현상을 주요한 연구대상으로 삼아왔다. 그리고 젠더 백래시(이하, 백래시)의 영향은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선진국의 성숙한 인권상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B5A07921244)

** 중국 광둥외국어외무대학 일어언어문화학원 캠퍼스아시아 부교수

황의 관점에서 볼 때 부정적인 인식의 영향이 남아 있고 결코 경시해서는 안 되는 일본사회의 큰 문제임을 지적해왔다.

‘백래시(バックラッシュ=backlash)’ 및 ‘배싱(バッシング=bashing)’이라는 용어는 젠더평등 교육과 성교육 및 젠더평등의 법률과 시책이 진행되어가는 것에 대한 조직적인 비판이나 반격·공격을 나타낸다는 점에서는 대체로 같은 의미로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사용법에 따라서 약간 다른 의미로 파악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백래시(backlash)’라는 것은 큰 흐름이나 전체의 움직임, 혹은 세력을 나타낸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환언하면 각각의 배싱의 총체를 역사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크게 합쳐진 움직임으로서 ‘백래시’라고 칭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격측의 세력이나 사람을 가리키는 경우는 ‘백래시파’라고 칭한다. 그것에 반해 ‘배싱(bashing)’이라는 것은 공격을 하는 행동이나 행위를 나타낸다고 이해하면 된다. 본고에서는 일반적으로 성교육에 대한 과격한 비판 등에 관해서는 ‘성교육 배싱’으로 표현하고 ‘백래시’와 ‘배싱’을 구별하여 쓰고 있다.

일본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09년까지, 페미니즘과 젠더평등에 관계되는 교육·정책이나 활동이 일부의 사람들과 보수계 매스컴에 의해서 심각한 비판과 공격을 받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것은 ‘백래시’ 또는 ‘배싱’으로 불리어졌다. 행정이나 교육현장에 상당히 강하게 영향을 미쳤고, 그로 인하여 남녀공동참획사회(男女共同参画社会) 형성에도 지장을 초래하였다. 또한 “많은 사람들 의식에도 페미니즘의 주장에 대한 의문과 반발이 확대되는”¹⁾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 이후 ‘백래시’ 출현은 남녀공동참획정책(=여성정책)이나 젠더평등 움직임이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그것에 위기감을 가진 사람들이 오래된 성질서(남성중심주의)를 유지하고, 신자유주의적인 전개 하에 새로운 보수적 성질서 구축을 노리는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사회의 ‘젠더 백래시’ 현상과 백래시파의 주장과 논리는 보수사상의 내셔널리즘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특히 일본군·위안부²⁾에 관한 담론(논의)과 교과서 기술문제는 일본의 대표적인 백래시 사례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문제는 일본의 우경화 정치가 그 배경에 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사건·사례 중에는 한일관계의 정치외교, 역사인식 문제와도 깊이 연관되어 있다.

본 논문은 일본의 우경화 정치에 따른 젠더 백래시 담론 가운데 학교교육 현장의 사례내용

1) 日本女性学会ジェンダー研究会編(2006)『Q&A男女共同参画 / ジェンダーフリー・バッシング・バックラッシュへの徹底反論』明石書店、p.3

2) 위안부 관련 용어를 보면, 한국에서는 일본군‘위안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전치 성적강제피해자, 일본군성노예 등 여러 가지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중군위안부, 일본군‘위안부’, 전 위안부(元慰安婦)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군‘위안부’로 표기한다.

을 중심으로 담론(논의)을 조사 분석하여 그 영향을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젠더 시점과 ‘젠더 백래시’문제의 관점으로 일본의 우경화를 지탱하는 우경화 정치와 교육과의 관련성을 밝혀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더 나아가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한일양국의 젠더평등에 미치는 영향과 학술적, 정책적 의미가 시사하는 바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고의 분석방법의 중심축인 젠더 시점, 법안·정책에 있어서의 가족단위 비판의 시점, ‘젠더 백래시’문제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본 연구 과제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밝혀내는 방법은 다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거의 수행되지 않은 독창적인 점이라 하겠다.

2. 우경화 정치에 따른 젠더 백래시 형성과정

2.1 젠더 백래시 배경으로서의 우경화

1990년대 이후의 일본의 우경화(자민당과 일본회의를 중심으로 한 전후체제의 재검토)와 함께 젠더 백래시 움직임도 진행되어 왔는데, 특히 백래시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시기는 1996년에서 2009년까지이다. 필자는 논문에서 이것을 ①백래시 발아기(출발점:1996~2001년) ②가속화기(2002~2004년) ③최성기(승리:2005~2007년) ④소강상태기(승리 후의 정체:2008~2009년)라고 하는 4개의 시기로 구분하고 시기구분의 명칭 설명을 그 내용과 맞추어서 제시하였다.³⁾ 하지만 백래시 움직임은 2009년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전국 지방자치체 레벨에서 대규모적인 젠더 백래시 움직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움직임으로 인한 큰 영향은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다. 결국 백래시 영향으로 교육현장에서는 성교육이나 젠더평등교육을 실시하기 어렵게 되었고, 전후 민주주의교육, 평화교육에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현재는 이 시기만큼 백래시는 강하지 않지만 여전히 학교교육 현장이나 행정 현장은 엄격한 상황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 백래시는 왜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우선 세계경제의 동향과 함께 일본의 우경화와 그 사회경제적 배경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자.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80년대 이후 세계경제에 등장하는 것이 ‘글로벌리제이션(globalization)’과 ‘신자유주의(新自由主義)’라는 경제정책의 조류이다. 또 하나, 그것과 더불어 등장하는 것이 ‘신보수주의(新保守主義)’라는 사상이다. 지구 규모의 시장경제화와 경쟁이라는 특징을

3) 石橋(2012)「日本における地方自治体のジェンダー行政とバックラッシュの流れ—1996年から2009年までの4つの時期を中心に」『日本近代学研究』第36輯、韓国日本近代学会

지니고 있는 글로벌리제이션과 신자유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현대 국제사회는 ‘빈곤과 격차’ 확대라고 하는 공통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⁴⁾ 이와 같은 큰 문제의 대응책으로 일본은 1990년대 버블 경제가 붕괴된 이후 새로운 국가 모델을 구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거기에 출현하는 것이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정권의 ‘구조개혁’ 정책이라 할 수 있다.⁵⁾ 신자유주의의 전형인 이 노선은 비정규직 등의 저임금 노동자를 급증시키는 약육강식의 정책으로 계층 격차가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⁶⁾

일본에서는 1990년 중반 이후 급속히 등장한 ‘신자유주의’라는 경제정책과 ‘신보수주의’라는 이념에 기초한 국가의 형태를 바꾸는 정책을 추진했다. 이른바 “강권한 국가 만들기” “군사 대국가(전쟁이 가능한 국가)”를 자민당 정권은 추구했다. 아사이 하루오(浅井春夫, 2006)는 이와 같은 국가재편(国家再編) 움직임이 정치, 군사, 교육, 사상의 4가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아사이의 고찰에 의하면 ① 정치에서는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을 구체화하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다. ② 군사면에서의 중점은 헌법 개정에 의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를 목표로 하고 있다. ③ 교육에서는 교육기본법 개정과 학교 경영으로서의 NPM(New Public Management)⁷⁾의 도입을 중심으로 개편이 진행되고 있다. 교육기본법 개정에서는 “21세기를 개척하는 마음 풍요롭고 강인한 일본인의 육성(二一世紀を切り拓く心豊かでたくましい日本人の育成)”이라는 교육 목표를 내걸고 있다. ④ 사상 분야에서는 ‘남자 이데올로기’의 침투 촉진과 남녀평등의 부정을 중심으로 이념적 통제를 진행시키려고 하고 있다. 강인한 일본인의 중심축에는 ‘남자 이데올로기’(강함·리더성·헌신정신) 양성이라는 과제가 요구된다. 남자 이데올로기(남성중심·남성우위주의)의 형성은 여성멸시의 사상과도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다.⁸⁾

이러한 국가의 재편을 노리는 움직임이 백래시와 관계하고 있으므로, 아사이가 지적하는 것처럼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하, 새역모)의 중심 멤버가 성교육과 남녀평등 배성의 이론적인 주요 멤버인 것에는 필연적 연계(連繫)가 있다. 예를 들어 ① 다카하시 시로(高橋史朗) 편저 『우리들의 아름다운 히노마루·기미가요(私たちの美しい日の丸・君が代)』(明

4) 水谷英夫(2008)『ジェンダーと雇用の法』信山社、p.159

5) 일본에서 격차 사회에 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다치바나키 토시아키(橋本俊昭)의 저서『日本の経済格差—所得と資産から考える』(岩波書店, 1998)가 계기가 되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격차 사회에 대한 담론(논의)이 일반적으로 확대된 것은 고이즈미정권의 구조개혁이 진행됨에 따른 것이다.

6) 中村政則(2010)『戦後史』岩波書店、pp.262-269 참조(初版、2005)

7) 아사이에 의하면 NPM이라는 것은 민간 기업적인 경영 기법을 대폭 도입한 ‘새로운 행정 경영’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교육을 일반 회사 조직처럼 위에서 철저히 관리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다. ‘자유 경제와 강한 국가’ 체제의 교육판 추진이다. (浅井春夫(2006)『性教育・男女平等・バッシングの背景と本質』浅井春夫他著『ジェンダー／セクシュアリティの教育を創る』明石書店、p.40)

8) 浅井、前掲『性教育・男女平等・バッシングの背景と本質』、pp.39-41

成社, 2003개정판), ② 니시오 간지·야기 히데츠구(西尾幹二・八木秀次) 『신·국민의 방심(新・国民の油断)』(PHP研究所, 2005), ③ 야기 히데츠구(八木秀次) 『국민의 사상(国民の思想)』(産経新聞社, 2005) 등의 저서에는 그 우익 사상과 백래시가 관계되어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⁹⁾ 성교육과 남녀평등 배성의 움직임에는 이러한 국가 재편의 목적과 배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시기에 ‘일본회의’(日本会議) 등의 우익 조직과 관련된 의련(議連) 등이 결성되어 그들 조직이 다방면으로 운동을 진행시켰다. 이른바 자민당 ‘종전 50주년 국회의원 연맹’(終戦50周年国会議員連盟, 1995년), ‘밝은 일본 국회의원 연맹’(明るい日本・国会議員連盟, 1996년), 자민당 ‘일본의 전술과 역사교육을 생각하는 젊은 의원의 모임’(日本の前途と歴史教育を考える若手議員の会=교과서 의련, 1997년), ‘일본회의 국회의원 간담회’(日本会議国会議員懇談会, 1997년) 등은 “위안부는 매춘부”라는 캠페인을 실시하거나 교과서의 일본군위안부 기술과 남경대학살 기술 삭제를 요구해 왔다. 상기의 조직과 운동의 대부분에 아베 신조(安倍晋三)가 중핵적인 역할로 관여하고 있었다. 이러한 1990년대의 움직임이 있었고 그것을 담당한 세력이 일본군·위안부 문제 이외에 대해서도 1998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집중적으로 젠더에 관한 공격을 실시하였다(=백래시).

즉 작금의 남녀공동참획이나 젠더프리교육, 성교육, 가정과교과서, 교과서의 일본군위안부 관련 기술에 대한 과격한 비판은 글로벌 경제화와 신자유주의 및 격차 등에서의 불만을 내셔널리즘에 회수(回収)시키려고 하는 우경화 정치와 결부시켜 행하여지고 있는 듯하다. 그것이 국가의 보수화와 그것을 위한 평화헌법과 교육기본법 개정을 지향하는 형태로 서서히 진행되었다.

2.2 고이즈미·아베 내각과 백래시와 각료들

국정의 우경화와 학교교육 현장에서의 배성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에 대해서 고이즈미 내각과 아베 내각의 백래시와 각료(장관)를 중심으로 간단히 검토해보기로 하자.

일본의 우경화에 대한 비판의 시점으로 학교교육 문제를 다루고 있는 대표적인 연구자 중에 한 명인 다와라 요시후미(俵義文)의 연구에 의하면, 2004년 9월에 출범한 제2차 고이즈미(小泉) 내각에는 ‘새역모’와 연계해서 역사교육 및 교과서 문제에 관여하고 추진해 온 대신부 대신·정무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새역모’ 교과서의 검정과 채택을 강력히 백업(backup)하는 내각이었다고 분석하고 있다.¹⁰⁾

9) 浅井、前掲「性教育・男女平等バッシングの背景と本質」、pp.39-40

10) 俵義文(2005)『あぶない教科書NO!—もう21世紀に戦争を起こさせないために』花伝社、pp.60-64

고이즈미 내각에 이어 아베 신조(安倍晋三)는 보수파 사람들의 기대를 받아 내각 총리대신에 취임하고 아베 내각(제1차)이 2006년 9월에 출범한다. 아베 정권은 내각을 조직할(組閣) 당시에 ‘역사교육의련’과 ‘일본회의의련’에 속해 있는 의원을 대거 등용함으로써 보수정권의 색채가 진해진다.¹¹⁾ 특히 백래시파로 불리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가 소자화·남녀공동 참획담당대신(少子化・男女共同参画担当大臣), 아마타니 에리코(山谷えり子)가 교육개혁담당총리보좌관(教育改革担当首相補佐官), 시모무라 히로후미(下村博文)가 관방부장관(官房副長官)으로 임명되었다. 또한 제2차 아베 내각(2012년 12월)에서도 다카이치 사나에가 정무조사회장(政務調査会長), 시모무라 히로후미가 문부과학상(文部科学相)에 임명되었다.

제1차 아베 내각 당시의 수상보좌관 4명의 인터뷰 기사가 「수상보좌관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표제로『정론(正論)』2006년 12월호에 게재되었는데, 거기에는 국가 개조를 지향하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아베 총리는 관저에 교육재생(教育再生)의 추진기관으로서 ‘교육재생회의’(노요리 료자·野依良治 좌장, 17명의 유식자)를 설치한다. 그곳의 사무국장인 아마타니 에리코는 “공교육의 충실, 가족, 지역사회의 재생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아베 총리가 교육재생 모델로서 참고로 하고 있는 것은 “대처 영국 수상이 진행한 교육개혁”이라고 말한다.¹²⁾

앞에서 말한『정론(正論)』에는 야기 히데즈구(八木秀次)의 「아베 총리, 교육재생에 초지관철을」이라는 기사도 게재되었다. 야기는 아베 총리의 역사인식과 교육에 대한 관심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아베 씨의 안에는 ‘무라야마(村山)=가와노(河野)=가토(加藤)=노나카(野中)’적인 것에 대한 강렬한 혐오감이 있다. 가장 큰 것 중의 하나가, 납치문제와 함께 이른바 ‘역사인식’ 문제였을 것이다. ‘고노 담화’ ‘무라야마 담화’에 대한 비판적인 발언은 지금까지 공사를 불문하고 반복해서 들었다. 정치인 아베 신조의 존재이유와 같은 것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 아베 씨의 ‘무라야마’적인 것에 대한 혐오감이 가장 큰 것 중에 또 하나는 교육이었다. 이것도 추측이지만 아베 씨의 교육에 대한 관심은 자학적인 역사교육에 대한 위화감에서 비롯되어 교육기본법 개정 논의 속에서 애국심 없는 교육의 이상함을 깨닫고, 젠더프리·과격화 성교육이나 그것을 추진하는 교직원조합에 대한 불신감이 되어, 영국의 대처 교육개혁에서 그것들의 근저에 있는 사회주의적 교육사상과의 결별 처방전을 찾아낸 것같이 보인다. 어느 문제에도 자민당의 어느 의원보다도 열심히 대처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사실 그들 문제의 중심에는 언제나 아베 씨가 있었다.¹³⁾

11)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林博史・俵義文・渡辺美奈『「村山・河野談話」見直しの錯誤—歴史認識と「慰安婦」問題をめぐって』(2013、かもがわ出版)을 참조 바람. 특히 다와라는 우익세력과 관련된 백래시파 각료들의 등용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12) 小池百合子・根本匠・山谷えり子・世耕弘成「首相補佐官かく語りき」『正論』2006년12月号, pp.108-109

13) 八木秀次「安倍総理、教育再生への初志貫徹を」『正論』2006년12月号, pp.115-116 필자역. 야기 히데즈

이어서 야기는 ‘교육재생회의’가 우선 순위의 상위로 추진해야만 하는 일로서 ① ‘유토리 교육(ゆとり教育)’ 노선과 결별, ② ‘교육계의 55년 체제’의 타파를 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아베는 자민당 ‘과격학 성교육·젠더프리교육 실태조사 프로젝트 탐’의 좌장이었을 때, 야마타니 에리코(사무국장) 의원이 국회에서 발언한 주장에 따라 백래시 행동을 취해 간다. 한편 가정교과서나 성교육, 젠더프리교육이 국정 차원에서 공격 대상으로 된 원인은, ① 일부 국회의원과 의회의원이 행한 비판적인 질문과 답변에서 일방적으로 사회문제로서 거론된 점, ② 일부 보수언론이 그 관련 기사를 검증없이 보도함으로써 사회문제로서 확산된 점, 이 두 가지라고 지적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대표적인 백래시파라고 알려진 야마타니 에리코 의원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다.¹⁴⁾

결국, 구조개혁과 더불어 ‘교육재생’ 및 ‘교육의 정상화’를 국가의 정책으로 내세운 제1차 아베내각은 실제로 수상관저에 ‘교육재생회의’를 설치하여, 2006년 12월에 교육기본법 제5조 ‘남녀공학’ 삭제와 제10조 ‘가정교육’ 신설이라는 내용 등으로 59년 만에 개정한다. 이처럼 교육기본법 개정을 향한 고이즈미정권과 아베정권의 집착은 매우 강했다. 이후 2012년 12월 17일 아베 수상의 기자회견에서도 ‘전후 체제로부터 탈피(戦後体制からの脱却)’에 대한 집착은 강하였다. 이처럼 젠더 백래시는 국정의 우경화를 배경으로 출현하였고 이러한 우경화의 정치적인 힘은 교육행정과 학교교육 현장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3. 학교교육 현장에서 젠더 백래시

3.1 젠더 백래시 현상

일본의 경우 특히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운동과 연동하고 있는 것에 특징이 있고, 거기에 운동적 측면뿐만 아니라 연구 면에서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곤란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또 하나의 특징으로 1990년대 후반 이후, 젠더론 및 페미니즘에 대한 왜곡·과장된 담론은 정치적인 힘으로 확대 재생산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¹⁵⁾

구는 2006년 4월 30일 ‘새역모’를 탈퇴하고 10월 22일에 ‘일본교육재생기구(日本教育再生機構)’라는 민간단체를 설립한다.

14) 야마타니 에리코는 전 『산케이리빙신문』편집장이었다. 2000년 6월 민주당으로 초선, 2002년 12월에 보수신당, 2004년 7월 자민당에 입당한다. 그 뒤 2005년 11월에 내각총리대신 정무관(남녀공동참획담당), 2006년 9월에 내각총리대신 보좌관(교육재생담당), 2008년 11월에 자민당 여성국장에 취임한다.

15) 石橋(2015)「日本の「ジェンダー・バックラッシュ」勢力の言説とその特性—性(性別・性の多様性)を中心

백래시 담론은 어떻게 연계되어 확산되었는지 그 메커니즘을 분석해보면, ① 반페미니즘 측의 보수운동의 정치적인 힘과 ② 보수주의 오피니언 리더와 정치가 및 관료의 발언, ③ 일부 보수계 잡지와 매스컴 보도의 “연계 플레이”의 연쇄 하에서 젠더론 및 페미니즘에 대한 왜곡과장된 유언이 확대 재생산되어 왔다.¹⁶⁾ 그들의 왜곡과장된 백래시 담론과 운동은 ‘젠더프리(gender free)’ ‘페미니즘’을 간과할 수 없는 “사회문제로서 인지하는 틀을 제시하였고 ‘사회문제로서의 젠더프리’ 구축 과정은 일정 부분 성과로 결실을 거둔 사회 운동이었다”¹⁷⁾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학교교육과 관련된 전후 민주주의교육, 젠더프리교육, 성교육, 가정과교과서, 교과서의 일본군·위안부 기술문제 등에 관해서도 상기와 같은 연계구조 하에서 이루어졌다.

백래시 측에 속해있는 오피니언 리더들은 주로 『산케이신문(産経新聞)』으로 대표되는 산케이 미디어의 지면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로써 그 영향력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은 페미니즘이 체현(體現)하고 있는 사상을 격심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① 하야시 미치요시(林道義)의 『페미니즘의 해독(フェミニズムの害毒)』(1999)과 『가족을 업신여기는 사람들—페미니즘에 대한 이론적 비판(家族を蔑む人々—フェミニズムへの理論的批判)』(2005), ② 니시오 간지·야기 히데츠구(西尾幹二·八木秀次)의 『신·국민의 방심—‘젠더프리’ ‘과격하 성교육’이 일본을 망친다(新・国民の油断—「ジェンダーフリー」「過激な性教育」が日本を亡ぼす)』(2005)라는 서적의 주장과 담론은 충분히 폭력적이다. ③ 다카하시 시로(高橋史朗)는 저서 『오류투성의 급진적 성교육(間違いだらけの急進的性教育)』(1994)을 통해 일찍부터 성교육에 대한 비판을 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간행의 취지를 보면 페미니즘이나 젠더평등 추진 시책에 대한 공격이 목적이라는 것이 명확히 기술되어 있다.

젊은이들의 의식과 태도를 형성하는 요소로서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일본의 교육행정은 한일관계의 현안인 역사인식 문제와도 긴밀한 관계가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서 근년의 민족차별을 선동하는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 확산과 함께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배상 및 관련 언론 보도를 들 수 있다. 이들 문제는 한일관계의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는 심각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육행정 및 학교교육 현장이라는 범주에서 어떠한 백래시 담론이

に」『日本研究』第23集, 高麗大学校日本研究センター, pp.95-96. 여기에서 필자의 문제의식에 대해 “개인의 인권과 자유에 입각하고 있는 젠더론과 페미니즘 사상이 왜곡되어 사회의 해로운 악으로 치부되고, 백래시파의 일방적인 단정과 왜곡의 영향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젠더평등의 의의가 전해지지 않는 것, 그것에 의해서 많은 여성들의 앰파워먼트(empowerment) 기회가 빼앗기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논하였다.

16) 竹信三恵子(2005)「やっぱりこわい? ジェンダー・フリー・バッシング」木村涼子編『ジェンダー・フリー・トラブル』白澤社, p.23 참조

17) 北田暁大ほか著(2006)『戦後日本における「バックラッシュ」的言説の社会的研究』2005年~2006年度の科研研究報告書

형성되었는지를 발굴하여 기록해가는 것과 그 담론의 논리적 구조를 고찰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백래시 담론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미처 깨닫지 못한 그 심각성을 밝혀가는 것도 과제라고 할 수 있겠다.

학교교육 현장에서 백래시파로 부터 직접적인 공격 대상이 된 주요 내용과 범위를 살펴보면, 우선 젠더 및 젠더프리 용어의 개념부터 시작하여, 젠더프리(ジェンダーフリー=gender free)교육, 숨겨진 커리큘럼(隠れたカリキュラム), 남녀혼합명부, 남녀혼합으로 하는 그룹체조나 기마전과 같은 운동회 경기, 건강진단, 성교육 및 성교육 교과서와 부교재(副読本), 성의 자기결정권, 가정과·역사·국어·공민교과서 등의 교과서 기술문제(특히 일본군·위안부, 젠더프리, 가족), 교과서 검정제도, ‘인권·평등·평화·국제이해’라는 이름 하의 편향교육, 교육기본법, 학습지도요령, 일본교직원조합(日教組)과 전일본교직원조합(全教)에 대한 탄압, 개인공격(성교육 교사, 좌익적 성향의 교사, 젠더평등교육 강사), 히노마루·기미가요(日の丸・君が代) 강제와 이를 따르지 않는 교사에 대한 처분¹⁸⁾ 등을 대표적인 사건·사례로 들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학교교육 현장에서 백래시파의 승리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성과로서 ① ‘젠더, 성, 가족’에 관한 교과서 검정의 보수화, ② 검정 교과서 기술에 있어서 이른바 ‘종군위안부(従軍慰安婦)’와 ‘젠더프리’가 삭제된 사례를 들 수 있다.

그리고 ‘과격한 성교육’ 비판과 ‘히노마루기미가요(日の丸・君が代)’ 강제 공격은 세트로 학교현장에 반입 된 특징이 있으며, 결국 이러한 영향은 성교육을 실시한 교사에 대한 교육위원회로부터의 조사, 히노마루기미가요 강제와 이를 따르지 않는 교사에 대한 처분, 직교출판사(実教出版社)의 고교 역사교과서 채택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통지¹⁹⁾ 및 엄격화로 이어졌다. 또한 성교육 배성 뒤에 숨어있는 백래시파의 목적은 국가 재편의 움직임 아래에서 진보계, 좌파계의 교원을 몰아내려는 공기를 만들어 ‘자학사관’을 비판하고 제2차 세계대전을 미화하여, ‘교육의 국가통치’라는 관리체제로 만들어 간다는 점을 선행연구와 이번 사례분석을 통하여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다.

학교교육 현장에서도 상기와 같이 여러 분야에 걸쳐서 우익세력의 백래시가 있었는데, 교육 실천과 함께 교과서 기술에 관련하여 백래시파에 의한 최대의 공격 표적이 된 분야는 ① 성교육, ② 가정과교과서, ③ 역사교과서의 일본군·위안부 기술문제라고 볼 수 있다. 성교육 배성에 관해서는 이미 필자는 논문²⁰⁾을 발표하였기에 본 논문의 4장에서는 가정과교과서

18) 도쿄도립나나오(七生)양호학교에 대한 성교육 배성과 그 관련 재판, 그리고 교사에 대한 처벌에 관해서는 民主教育研究所「ジェンダーと教育」研究委員会編著・発行(2010)『ジェンダー平等の豊かな社会をめざして—性教育・ジェンダーバックラッシュをのりこえる』에서 상세히 논하고 있다.

19) 도쿄도교육위원회는 2013년, 2014년, 2015년 3회에 걸쳐 “사용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견해를 도립교에 통지한다. (『아사히신문』2013.10.10『아사히신문』2015.6.25)

와 역사교과서 배상에 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3.2 아베 수상의 교육개혁과 교육재생

아베 신조는 2012년 12월 “일본을 되찾는다(日本を取り戻す)”고 하는 자민당의 슬로건으로 다시 수상의 자리에 오른다. 내각총리의 교육개혁 의지는 교육현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베의 교육개혁과 교육재생에 관한 주장을 그의 저서 『아름다운 나라로(美しい国へ)』(文藝春秋, 2006)의 제7장 교육재생을 통해서 검토해보고자 한다.

자긍심을 회복시킨 대치의 교육개혁

… 대치는 전 238조에 이르는 ‘1988년 교육개혁법’에서 두 가지를 단행하였다. 하나는 자학적인 편향교육의 시정, 다른 하나는 교육수준의 향상이다. … 양쪽 모두 일본의 교육이 안고 있는 과제와 겹친다. 그래서 내가 간사장이었던 2004년 가을, 자민당은 교육조사단을 영국에 파견했다. 영국의 경험이 반드시 일본의 교육개혁, 특히 교육기본법 개정에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²¹⁾

부적합한 교사에게는 그만두게 한다.

… 꼭 실시하고 싶은 것은, 대치개혁이 실시한 것과 같은 학교평가제도의 도입이다. 학력뿐만 아니라 학교의 관리운영, 학생지도의 상황 등을 국가의 감사관이 평가하는 구조다. 문제 학교에는 문과상(文科相)이 교직원의 교체나 민영으로의 이관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다. … 감사의 상황은 국회 보고사항으로 해야 할 것이다. 학교운영 개혁이라는 면에서는 학교장의 권한 확대와 학부모 참여가 필요하다. 또 지역주민이나 지역기업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면 더욱더 큰 의미가 있다.²²⁾

아베는 여기에서 교원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원면허 갱신제도 도입’과 ‘유아교육 개혁’ 등을 들며, 학력 회복보다 문제인 것은 “모럴(도덕) 저하 쪽이다”라고 역설한다. 그러한 교육개혁안에 입각하여 레이건 대통령은 “학교교육의 재건과 동시에, 가족 가치의 재검토를 진행시켰다”고 소개하고 나서 「가족의 모델을 제시하지 않는 일본의 교육」이라는 표제어로 젠더프리와 가정과교과서를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20) 石橋(2011)「大阪府A市立B中学校における「性教育バッシング」の事例」『日本近代学研究』第33輯、韓国日本近代学会. 이 논문에서 필자는 중학교 보건·체육 수업에서 성교육을 담당한 노무라 교사에 대한 인터뷰라는 실증연구를 통하여, 성교육 배상에 관한 상세한 기록과 분석을 하였다.

21) 安倍晋三(2006)『美しい国へ』文藝春秋、pp.202-203(필자역)

22) 安倍、前掲『美しい国へ』、p.211(필자역)

요 몇 해 사이 젠더프리라는 개념이 등장했다. 생물학적 성차나 문화적 배경도 모두 부정하는 급진적인 생각을 포함하는 일본식 영어(和製英語)다. 그러나 근래 젠더프리의 이름 아래, 단오절이나 히나마츠리까지 ‘남자다움·여자다움’을 강요한다고 해서 부정하는 듯한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일이 지적되어, 도쿄도교육위원회와 같이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지자체도 나왔다. 그 결과 행정에서는 젠더프리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게 되었지만, 젠더프리적인 사고방식은 교육현장에 널리 보급되어 있다. 가정과교과서 등은 ‘전형적인 가족 모델’을 제시하지 않고, “가족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어도 좋다”고 설명한다. … 동거, 이혼 가정, 재혼 가정, 싱글 맘, 동성에 커플, 그리고 개와 사는 사람 ……모두 가족이다, 라고 교과서는 가르친다.²³⁾

실제 2004년 9월 야마타니 에리코 의원을 포함한 자민당과 민주당 국회의원 6명이 교육조사단으로서 영국에 파견되었다. 현지의 학교와 교과서회사, 교육부 등을 시찰했다고 한다. 당시 조사단의 인사에 관여한 사람은 자민당 간사장 대리였던 아베이다. 이후 조사단은 『대처개혁에서 배우는 교육정상화의 길(サッチャー改革に学ぶ教育正常化への道)』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아베 신조는 국회와 공식적인 장에서 페미니즘이 체현하고 있는 사상을 격심하게 비판하고 일본의 표준 가족, 전통문화를 미화하며 자긍심과 애국심을 강조하는 “아름다운 일본”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운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하나의 결과로, 2006년 12월 22일에 교육기본법이 개정되었다.

4. 교육현장의 젠더 백래시 담론과 영향

4.1 가정과교과서의 기술문제

전후 일본의 학교교육에 있어서 남녀평등의 과제 중 하나는 남녀공학의 실시였지만, 그 교육과정을 보면, 고교 가정과의 여자만 필수, 기술·가정과 체육의 남녀별수(男女別修)라는 남녀특성에 근거한 남녀 분리의 교육내용이었다. 다치 가오루(館かおる)는 “남녀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부여하는 것이 평등”으로 하는 ‘특성 교육론’에 근거한 남녀평등 교육관이라고 분석하고 지금도 남녀특성 교육론은 교육계에 참으로 뿌리 깊게 남아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전후 민주교육에 내재하는 이 남녀특성 교육이라는 성차별 교육에 대한 노동조합 여성부를

23) 安倍、前掲『美しい国へ』、pp.215-217(필자역)

중심으로 ‘여자교육 문제’라는 시점에서의 추진이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다고 논한다.²⁴⁾ 거기에는 교사들이 교육실천을 하는 가운데서, 학교가 성 불평등을 재생산하고 있다(남자우선의 학교 관행 등)고 하는 깨달음이 배경에 있었다.

그리고 “여성학의 관점에서 교과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분명히 하는 운동이 1970년대 이후 축적되어 왔다.”²⁵⁾ 일본에서는 1990년대 이후 학교문화를 되묻는 ‘숨겨진 커리큘럼’에 관한 연구와 운동이 활발해졌다. 이와 같은 교육운동이 현장에서는 ‘젠더프리교육’이라는 표현으로 알려졌다.

이노우에(井上) 연구에 의하면, 가정과(家庭科)는 원래 전후의 교육개혁 속에서 탄생한 과목이며 ‘가정의 민주화’를 남녀공학으로 배우는 교과로서 출발했지만, ‘역코스’라고 불리는 복고적 풍조 속에서 가정과의 위치도 점차 변질되었다고 한다.²⁶⁾ 이노우에의 말처럼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여성의 지위와 성역할관의 변천이 여실히 반영된 과목”이기 때문에 가정과교과서는 백래시파의 공격 대상이 되었다. 그럼 어떠한 담론(논의)으로 배상을 받았는지에 대해 검토해 보도록 하자.

다카하시 시로(高橋史朗)는 「파로스를 바로잡고 국가로서 기능하지 않는다(ファロスを矯めて国立たず)」(2002) 라는 논문에서 “역사교과서보다도 심각한 ‘국민의 방심’은 가정과교과서 쪽에서 보인다”고 평가한다. 그 이유의 일례를 아래와 같이 들며 조속히 가정과교과서 비판에 대한 국민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선동하고 있다.

남녀공수²⁷⁾의 가정과에서는 선택제부부별성이나 가족의 다양화를 다루는 교과서가 눈에 띄고, “이제는 동성에 커플이라도 가족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없다”(교육도서)라고 하는 기술이 처음 등장하는 등, ‘사실혼’이나 싱글 맘을 긍정하는 듯한 필치가 나타나게 되었다.²⁸⁾

… 극단적인 페미니즘, 사회적 문화적으로 만들어진 성차를 없애려고 하는 ‘젠더프리’의 사상이 가정과교과서를 통해 젊은이들에게 침투하여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의외로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현행 가정과교과서를 방치하면 생활 방식으로서의 문화 파괴, 즉 가정, 가족, 공동체 의식의 붕괴를 초래할 것은 명백하며, 조속히 가정과교과서를 비판하는 국민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²⁹⁾

24) 館かおる(1998)「学校におけるジェンダー・フリー教育と女性学」『女性学』Vol.6、日本女性学会、p.11

25) 井上輝子(2011)『新・女性学への招待』有斐閣、p.40

26) 井上、前掲『新・女性学への招待』、pp.53-54

27) 남녀공수(男女共修)란 ‘남녀공학 필수’의 준말

28) 高橋史朗(2002)「ファロスを矯めて国立たず」八木秀次編著『教育黒書』PHP研究所、p.96(필자역)

29) 高橋、前掲「ファロスを矯めて国立たず」、pp.97-98(필자역)

계속해서 다카하시는 현행 고교 가정과교과서와 지도자료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 배경에 있는 묵과할 수 없는 정치적 편향성을 밝히겠다고 기술한다. 본론에서는 가정과교과서와 지도자료 기술에 대한 회의론적인 해석과 비판을 언급하고 나서 “일본의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한 일본 독자(日本独自)의 가정과교과서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가 말하는 문제점을 요약해서 이하에 소개하고자 한다.³⁰⁾

첫 번째 문제점은 가정과교과서가 전업주부와 현모양처를 부정적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카하시는 직교출판(実教出版)의 고교 가정과교과서 『가정일반 21(家庭一般21)』의 기술을 일방적인 부정론이라고 해석한다. 이 기술에 대해서 참의원 문교과학위원회(2002.3.20)에서 고토 히로코(後藤博子) 자민당의원이 “이 기술은 너무 편파적이어서 전업주부나 현모양처에 대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발언하고, 중의원 문부과학위원회(2001.10.31)에서 아마타니 에리코 민주당의원이 문제시했다고 소개한다.

둘째는 ‘개인의 자립과 평등한 파트너십’을 키워드로 ‘가족 속의 민주주의’를 더욱 중시하고 전통적인 가족을 상대화하여 ‘탈 가족’을 지향하고 있는 점이다. 예를 들어 직교출판 『가정일반21』의 “부모와 자식은 상하 관계가 아니라 평등한 관계(파트너)이다”, 가이류도(開隆堂) 『가정일반(家庭一般)』의 「앞으로의 가족·가정」이라는 기술을 비판한다.

셋째는 “아이들은 세 살까지는 상시 가정에서 어머니의 손으로 기르지 않으면 아이의 그 후 성장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주장을 교과서가 부정한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가이류도의 지도자료, 직교출판의 지도자료 “3세아 신화(三歳児神話)는 합리적 근거가 없다”, 헤세이(平成)10년판 『후생백서(厚生白書)』의 “3세아 신화에는 적어도 합리적인 근거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기술을 비판한다.³¹⁾

넷째는 가정과교과서가 ‘부성’과 ‘모성’이라는 용어를 피하고 ‘친성(親性)’과 ‘육아성(育児性)’ ‘양호성(養護性)’이라는 낯선 용어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카하시는 상기의 교과서와 후생백서의 기술을 비판한다.

다섯째는 ‘남자다움, 여자다움’보다도 ‘인간다움’을 특별히 강조하는 점이다. 가령 문부성이 작성한 『학생지도에서 성에 관한 지도(生徒指導における性に関する指導)』의 “성차와 성차별을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여성차별철폐 조약 제1조, 일교조(日教組) 방침(제90회 임시대회의원), 남녀혼합명부, 일교조의 평화학습책자 편집위원회(편) 『종합학습 시간에 활용한다—이것이 평화학습이다(総合学習の時間に生かす—これが平和学習だ!!)』의 ‘평화와 젠더’ 시점의 관련기술, 도쿄도 아다치구립중학교의 ‘요노나카(よのなか)’ 수업, 다카하시는 비판적으로

30) 다카하시 논문은『教育黒書』의 제2장「「인권」「평등」「평화」「국제이해」라는 이름의 편향 교육」 안에 실려 있으며, 필자가 98-114쪽을 참조하여 요약 번역했다.

31) 林道義『母性の復権』(中公新書)、宮本健作『母と子の絆』(同)、澤口俊之『幼児教育と脳』(文春新書)를 인용하면서 다카하시는 3세아 신화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반론한다.

기술한다.

여섯째는 가정과교과서가 다양한 가정과 가족상을 강조하고 부부별성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편향된 기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카하시는 직교출판의 동 교과서 ‘1994년 유엔 국제가족년선언’의 다양한 가족상, 도쿄서적 『자료·가정과』의 별성제도(別姓制度)에 관한 기술을 비판한다.

일곱 번째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교과서인데, ‘성적 자립’ 즉 성적자기결정권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직교출판의 동 교과서 ‘성적 자립’, 직교출판의 부독본『살다-남자와 여자의 자립·공생(生きる-男と女の自立・共生)』, ‘자립의 피라미드’, 아마모토 나오히데(山本直英) 『육아 중의 성교육(子育てのなかの性教育)』(大月書店, 1989), 히토즈바시출판(一橋出版) 『신가정 일반』, 히토즈바시출판 부독본『휴먼 섹솔로지(ヒューマン・セクソロジー)』의 교사용 지도서에 있는 ‘학생의 연구과제’라는 기술을 비판한다.³²⁾

여덟 번째는 가정과교과서가 아동의 권리조약을 왜곡하여 확대 해석을 하고 어린이를 권리행사의 주체로 여기는 점이다. 다카하시는 직교출판『가정일반21』과 가이류도의 지도자료에 실린 아동 권리에 관한 기술을 비판한다.

아홉 번째는 가정과교과서가 1995년에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4회 유엔 세계여성회의에서 ‘낳는다, 낳지 않는다’를 결정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고 인공임신중절도 여성의 기본적 인권의 일부(리프로덕티브 헬스/라이즈=성과 생식에 관한 건강/권리)라고 명기하고 있는 점이다.

열 번째는 가정과교과서가 ‘여성차별철폐조약’과의 관련에서 가정과를 남녀공수의 교육과정으로 한 것이다. 다카하시는 가정과 남녀공수는 세계의 흐름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논하며, 여성차별 철폐조약의 조약국 168, 서명국 97, 비준국 94, 가입국 70, 계승국 5, 라는 숫자와 같이 일본은 독자성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상의 가정과교과서에 대한 회의론적 해석과 비판은 백래시파의 전형적인 주장이다. 이들 담론(논의)은 학교교육과 성교육, 페미니즘 전반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에 그 영향은 넓고 문제는 심각하다. 이것에 대한 비판점으로, 권리를 억제하는 움직임이나 도덕의무주입주의(개인의 권리보다 도덕이나 의무를 좋아함), 남성중심주의 사상, 마음에 들지않는 것은 잘라 버리기, 국제적 이해의 부족과 국제적 감각의 뒤떨어짐 등을 지적할 수 있다. 특히, 교육 현장에서 오랜 세월 쌓아올린 교사나 시민의 운동과 이론의 성과³³⁾를 너무나 경시하고 단순화하여 배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인다.

젠더평등론자가 과학적 학문적으로 쌓아온 지견(知見)을 완전히 무시하고 대중의 인기를

32) 다카하시에 의하면, 고교 가정과가 1994년도에 남녀공수가 되었고, 채택율이 37.3%로 1위를 차지하는 가정과교과서가 직교출판(実教出版), 26.8%로 2위를 차지하는 것이 히토즈바시출판(一橋出版) 교과서라고 한다.

33) 학교교육에 내재해 있는 성차별 문제(숨겨진 커리큘럼), 젠더 문제를 생각하게 하는 새로운 교육방식의 방향 모색, 인권의식 고양, 민주주의와 평화교육 등이 있다.

얻기 위해 단순히 “아이를 응석받이로 기른다” “부성과 모성이라는 자연의 역할을 부정한다” “전업주부와 전통적 가족을 부정한다” “어린 자녀는 어머니가 가정에서 키우는 것이 좋다”라는 정도의 말을 하고, 남녀평등 정책과 교육 전체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즉, 주장은 단순하며 반복을 통해서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문제는 극우계 약소 미디어나 산케이와 요미우리 등 보수계 미디어뿐만 아니라 그 밖의 매스미디어도 정면에서 백래시 담론을 비판하는 일 없이 “좀 지나치다”고 하는 정도로 간과해, 이러한 백래시의 억지스런 논의를 비판하지 않았다는 점이다.³⁴⁾ 그것은 언론 매체 기자들이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며, 백래시파 이론가와 정치인들의 이야기(주장)밖에 보지 않았기 때문에 페미니즘이나 남녀공동참획을 옹호하는 입장에 서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 중에는 매스미디어를 담당하는 사람들(대부분은 남성) 자신이, 페미니즘에 대한 내적 혐오감을 일부 가지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가족과 전통을 둘러싼 담론을 보면, 백래시파는 이성애 부부와 자녀를 기본으로 하는 법률혼의 가족 모델을 ‘기본 가족’ ‘표준 가족’이라며 사회의 기본 단위로 단정한다. 성별역할분담에 의거한 기본 가족을 ‘일본의 가족’ 또는 ‘전통’이라고 강조하며 전통 가족을 재구축하려고 하는 의도를 여실히 드러낸다. 그 기본 가족에 적합하지 않은 가족형태는 대등하게 다뤄서는 안 된다는 논리이다. 그 기본 가족의 중요성을 가르치지 않는다, 다양한 가정과 가족상을 강조한다, 전업주부와 현모양처를 부정한다, 성적자기결정권(성적 자립)을 특별히 강조한다, 등의 이유로 가정과교과서는 역사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심각한 “국민의 방심(国民の油断)”으로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기본·표준의 규정 속에는 다수파의 이익 우선과 소수파의 무시라고 하는 공리주의가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다양한 가족과 삶의 방식이 늘어나고 있다. 가족의 모습과 전통문화, 사람의 행동양식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지 페미니스트로 인해 붕괴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다양한 현실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과 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4.2 일본군 ‘위안부’ 기술문제

우익 세력에게는 ‘아름다운 일본(美しい日本)’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자학사관(自虐史観)의 핵심을 이루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 문제를 추궁하는 젠더평등론자와 페미니스트들은 제거하

34) 内田ひろ子他編『女性情報』249号(特集「06ジェンダー関連全報道」「教育はいまー教育基本法改正案衆院通過」)パド・ウィメンズ・オフィス、2006年12月号(他、2004年12月号や2005年12月号など)와 보수계 미디어 기사를 참조하였다.

고 싶은 장애물이었다. 그 때문에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주장이 반복되었고, 그 세력이 승리해 갔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는 전혀 통용되지 않는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일본국내에서는 그 인권 부정의 담론이 당당하게 존재하게 되었다. 결국 백래시는 일본사회의 그러한 인권의식의 낮음이 젠더 측면에서 표출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대에 우익 세력은 자민당의 우파 의원과 연계하여 다양한 ‘의련’을 만들었고, 그 후의 젠더 백래시로 이어지는 주장을 반복하며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93년 8월 내각관방장관 담화 발표이후, 1996년 6월에 ‘밝은 일본 국회의원연맹’, 1997년에 ‘교과서 의련’과 같은 극우 성향의 국회의원 정치적 모임이 결성되었고, 이와 연동하여 1997년에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과 ‘일본회의’라는 일본 최대의 우익단체가 발족하였다. 이 단체들을 중심으로 학교 교과서의 일본군 ‘위안부’ 및 젠더 관련 기술 삭제를 위한 본격적인 운동이 전개되었다. 이른바 교과서 공격이다.

한편 ‘교과서 의련’은 그들의 학습회 성과를 『역사교과서에 대한 의문』(展轉社, 1997년)에 정리했는데, 그 내용은 1993년 고노 담화는 확실한 증거도 없이 한국이 요구하는 대로 강제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철회해야 한다고 하는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는 우익의 주장 그대로이며, 백래시와 겹치는 것이었다.

이상과 같이 교과서 공격은 정치적인 힘의 결과로 교육현장에 영향을 미치는 연계구조 상에 있으므로, 일본국회 회의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여성가족부가 간행한 보고서(2017) 일부를 요약하여 아래에 소개하겠다.³⁵⁾

일본국회 회의록(1948~2002년)에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논의를 살펴보면, 전후 일본국회에서 ‘위안부’라는 용어가 최초로 언급된 것은 1948년 11월 27일 열린 중의원 법무위원회에서 일회적으로 잠깐 언급되었다. 이후 본격적인 논의는 1990년 이후에 이루어진다. 그것은 1990년 6월 6일 예산위원회에서 사회당의 모토오카 쇼지(本岡昭次)의원이 중군위안부 연행 사실에 관한 질문에서부터 논의가 본격화된다. 그리고 한국의 국회에서도 1990년 6월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처음으로 거론되었다.

일본국회 회의록 검토를 통해서 1990년대 일본정부 내에서의 논의 과정과 정치인의 발언 및 다양한 입장 차이를 파악할 수 있으며, 왜 일본정부가 아시아여성기금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지에 관한 국내외적 배경과 일본정부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

35)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편저(2017)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발굴·정리·해제사업—일본국회 회의록(1948~2002)의 ‘위안부’ 관련 논의 해제·번역(상)(하)—』 여성가족부. 필자는 이 연구과제의 공동연구자로서 번역과 해제 업무 일부를 담당하였다.

1990년대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본국회 내 여·야 정당의 질문과 논의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나 피해자의 보상, 아시아여성기금 등과 관련된 질의·응답, 둘째는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위안부’ 기술과 역사인식 문제를 둘러싼 질의·응답, 셋째는 국제사회의 움직임 소개와 이에 관한 일본정부의 대응과 관련된 질의·응답 등으로 집약된다. 이 중 몇 가지 질문은 1990년대 중반부터 일본사회 내에서 우경화의 목소리가 차츰 높아져가면서 보수파 의원들이 중학교에서 ‘위안부’를 가르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한 질문들이다. 이 외의 대부분 질문은 민주당·공산당·사회당 등 몇몇 야당 의원들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나 대처방식을 비판하면서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이다.³⁶⁾

일본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에 관련된 배상청구권 등의 문제는 “샌프란시스코조약과 기타 협정에서 일본정부는 성실히 대응해왔으며, 이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되었다.”는 입장이다. 한일 간의 경우는 1965년 한일기본조약으로 모든 청구권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고 하는 종래의 입장을 반복한다. 상기 보고서에 의하면, 전후 일본국회에서 ‘위안부’라는 용어가 언급된 회의는 1948년에서 2002년까지 총 429건이다. 그 중에서 1992년(68건)과 1993년(52건)에 집중적으로 논의되었고 1991~2002년 사이에 거론된 건수가 많았다.³⁷⁾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교과서와 위안부’에 관한 내용은 총 약 66개 회의에서 언급되었다. 그리고 1992년 2월 19일 제123회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국무대신 하토야마 구니오(鳩山邦夫)가 “중군위안부 문제도 아마 한 출판사만 고교의 역사에서는 일본사로 다루고 있습니다.”³⁸⁾라고 발언하였다. 이처럼 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고교 역사교과서 출판사가 한 곳만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국회에서 교육에 관한 논의와 발언은 문부성과 각 지방 교육위원회와 언론계에 영향을 미치며 교육위원회의 견해는 학교교육 현장에 통지되는 연계구조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1996년부터 본격적으로 기술 삭제를 요구한 백래시파의 움직임(운동) 결과, 현재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교과서 기술은 어떻게 되어있을까?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기술변화의 결론을 살펴보면, 1993년 고노 담화와 1995년 무라야마 담화 발표 후에 1996년에 실시한 1997년도 교과서 검정에서 모든 역사교과서(전 7사)에 처음으로 ‘위안부’ 용어가 기술되었다. 1996년 5월에 이 일이 일제히 보도되자, 우익단체들은 격심한 가두선전 행동을 시작하였고 교과서회사 간부와 집필자 대에 협박장을 보내는 등 반대운동을 실행하였다.(『아사히신문』2001.9.4)

36) 전게서 p.10

37) 전게서 p.5 “<표 I-1> 위안부’관련 일본 국회 회의록 건수”를 참조

38) 전게서 p.160

이어서 12월 11일 제139회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이타가키 다다시(板垣正) 의원이 중학교 7종 교과서에 기술된 것에 대해 검정기준 등을 정면적으로 문제제기하고, 후세대들이 자랑스런 역사인식을 가질 수 없게 된다는 등의 이유로, 위안부 문제를 교과서에서 삭제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이러한 논의는 국회에서 계속 이어진다. 그 결과 2002년도 역사교과서에서 위안부 기술은 전 8사 중 3사만 남았고, 2006년도 역사교과서에는 2사만 남았으며 2012년도 역사교과서의 위안부 기술은 모두 삭제되었다.

다음은 2012년과 2013년의 검정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기술을 살펴 보면, 교과서회사 전 6사에서 출판하는 15종류 역사교과서 중에서, 9종류 교과서에서 위안부 용어가 기술되어 있었고, 4종류는 본문의 각주에서 위안부 용어가 기술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기술은 1~2문장에 그치는 아주 짧은 내용이어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학습하기 곤란한 실태에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2011년 검정 중학교 역사교과서에서 위안부 기술은 모두 삭제되었고, 2010년 검정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에는 위안부 기술은 없었다.

그럼 현행 역사교과서에는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일본 고교 역사교과서 중에서, 대학입시 수험생을 대상으로 채택율 1위를 차지하는 ① 야마카와출판사 『일본사B』(山川出版社 『日本史B』 2015)와, 진보적인 출판사의 교과서로 알려져 있는 ② 직교출판사 『일본사B』(実教出版社 『日本史B』 2016)를 중심으로 분석해보자.

첫째, 2012년 문부과학성 검정과 2015년 발행 ① 야마카와출판사 『일본사B』에서는, 목차 제IV부 ‘근대·현대’ 제10장 ‘두 개의 세계대전과 아시아’ 6절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제목 밑에 「국민생활의 붕괴」라는 표제어 본문의 각주2에 기술되어 있다. 본문에는 “... 학교에 남는 학생이나 여자정신대에 편제한 여성을 군수공장 등에서 일하게 했다(근로 동원).”와 같이 여자정신대라는 용어만 언급되어 있다.

조선에서는 1943년, 대만에서는 1944년에 징병제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미 1938년에 지원병제도가 도입되어, 식민지에서도 병사를 모집하고 있었다. 또한 전지에 설치된 ‘위안시설’에는 조선·중국·필리핀 등에서 여성이 모집되었다(이른바 중군위안부).³⁹⁾

그리고 『일본사용어집 A·B공용』(2014)에는, 목차 제14장 3절 ‘현대의 사회문제’ 안에 ‘중군 위안부문제’ 용어 설명으로 “일중전쟁·태평양전쟁 중에 일본군에게 징용된, 주로 조선 등의 동아시아 각국의 위안부에 대한 사죄와 보상의 문제.”라고 기술되어 있다.⁴⁰⁾

39) 笹山晴生・佐藤信・五味文彦・高埜利彦ほか10名(2015)『詳説日本史B』山川出版社, p.365(필자역). 일본에서는 공장 근로자인 여자정신대와 중군위안부는 다른 의미로 용어를 구별하여 사용한다.

둘째, 2013년 문부성 검정과 2016년 발행 ② 직교출판사 『일본사B』에서는, 목차 근·현대 12장 ‘15년 전쟁과 일본’ 3절 ‘아시아·태평양전쟁’ 내용에 포함된 ‘주제학습 일본식민지하의 대만·한국의 사람들’코너 안의 「군인(군속) 동원과 강제연행」이라는 표제어 본문에 게재되어 있다.

… 1944년 이후 수천인 조선인 여성이 근로정신대로서 일본 공장에 보내졌다. 더욱이 다수의 여성이 일본군 병사의 성 상대로서 위안부가 되어,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의 전선이나 오키나와 등에 연행되었다.

이러한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의해서 다대한 손해와 피해를 입은 아시아 여러 나라 사람들 사이에, 근년 정부와 관계 기업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확대되어 갔다. 이것에 대해 일본정부는 보상문제는 각국과의 조약에서 해결되었다고 하는 태도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간의 보상문제는 해결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의해서 개인 보상 청구권이 소멸되는지 어떤지, 문제는 남아있다.⁴¹⁾

또한 355쪽에 “전후보상재판의 원고단 도쿄지방법판소 입구에서 묵도하는 전 위안부.”라는 김학순 외 원고단 사진 삽화가 실려 있다. 또 한 곳은 13장 ‘현대 일본과 새 문화’ 5절 ‘세계사의 전환과 일본’이라는 제목 아래에 「격동하는 세계와 일본의 기로」라는 표제어 본문에 기재되어 있다.

일본이 아시아에서 “명에 있는 지위를 차지하기”(일본국헌법) 위해서는 과거의 침략을 반성하고, 위안부나 강제노동의 보상문제 등을 성실히 해결하는 것과 함께, 그 경제력을 활용하면서 동아시아의 평화적 지역공동체 형성에 대한 협력 등, 아시아 여러 국민과의 진정한 공존을 지향하는 일관된 노력이 불가결하다.⁴²⁾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기술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① 야마카와출판사 『일본사B』는 한 곳에서 한 문장 정도의 설명으로 되어있고, 『일본사용어집 A·B공용』도 마찬가지로 자세한 설명은 없었다. 진보계 ② 직교출판사 『일본사B』는 한 곳에서 두 문장 정도의 설명과 함께 두 군데서 다소 긴 문장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으며, 삽화 사진 1장이 실려있었다.

40) 全国歴史教育研究協議会編(2014)『日本史用語集 A・B共用』山川出版社、p.373(필자역)

참고로 331쪽의 ‘조선인의 강제연행’이란 용어 설명에 “… 조선인 여성은 정신대나 종군위안부로서 모집되었다.”고 기술

41) 脇田修・大山橋平ほか14人(2016)『日本史B』実教出版社、p.323(필자역)

42) 脇田修、前掲『日本史B』、p.358(필자역)

그리고 2014년에 문부과학성이 개정판을 발행한 『고등학교학습지도요령해설 지리역사편』과 『고등학교학습지도요령』을 검토해 본 결과,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내용이나 직접적인 기술은 없었다.

현재 역사교과서의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기술이 삭제 또는 축소되는 경향에 있으며, 제대로 교육을 받은 교사가 없는 실정이라고 추측 가능하다. 이는 학교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일본군‘위안부’ 제도를 자세히 가르칠 수 없는 상황이며, 현재 일본 청소년 대부분은 이 문제를 둘러싼 논의와 쟁점, 문제점, 특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당사자 주권’이라는 관점에서의 해결방안에 대해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필자가 일부 일본인 대학생을 인터뷰한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다.⁴³⁾

보수우익세력을 기반으로 하는 아베정권에서는 일본군‘위안부’ 제도에 대한 일본정부의 관여와 법적 책임을 일관되게 부정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아베정권이 퇴진하지 않으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당사자 주권’이란 관점에서의 해결(국가책임 인정)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한편 젠더평등론자들은 피해자에게 국가책임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죄를 하는 것이야말로 미래를 향해서 행할 수 있는 역사적 공헌이라고 논박하고 있다.

5. 맺음말

본 논문의 시대적 연구 범위를 1990년대 이후로 한정하는 이유는 ① 이 시기에 일본에서 실질적인 여성운동과 여성정책이 진행되어 갔던 점과, ② 1995년 위안부 문제가 교과서에 게재되면서 백래시파에 의한 조직적인 반대운동이 시작된 점, ③ 일본의 경우, 젠더평등이 실질화·제도화 되어 가는 것이 명백하게 된 1990년대 말부터 백래시 움직임이 활발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체로써 젠더 백래시는 우익적 보수적인 세력이 오랜 세월을 걸쳐서 추구해온 노선을 실현하는 움직임 가운데, 특히 여성의 인권을 전진시키는 움직임에 대한 부정의 언동(言動)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이른바 고노 담화(1993)와 무라야마 담화(1995) 발표 전후의 일본사회의 상황과는 달리, 2006년 아베정권 출범 이후의 일본군‘위안부’ 제도에 있어서 돌변하는 태도(언동)를 일컬어,

43) 필자는 올해 중국 광둥외대와 한국 동서대학교에서 유학 중인 일부 일본인 학생, 일본 교토에 거주하는 일부 일본인 대학생을 상대로 고교 일본사 수업시간에 다룬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학습내용에 대해 인터뷰를 하였다.

이를 젠더 백래시 현상의 결절점(結節点)으로 평가 가능하다. 이러한 언동은 국제적으로 전혀 통용되지 않는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본 국내에서는 그 인권 부정의 담론이 당당하게 존재하고 매스미디어까지도 그것을 용인하고 침묵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기존의 연구에서 이 문제의 실태를 고발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일본사회의 질적 변화가 그 배경에 있기 때문에 백래시 관점에서 분석하고 재해석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로서 유효하며, 연구사적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012년 12월 제2차 아베내각이 성립하는 전후부터 재차 새로운 백래시가 활발화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그것은 일본의 우익세력이 이전부터 계속 지향해왔던 인식의 전환, 즉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특별한 문제가 아니고 어느 나라에서나 해 왔던 일, 위안부는 매춘부이며 돈을 목적으로 하고, 중국이나 한국은 반일(反日)에 위안부 문제를 이용하고 있을 뿐이고 결국 일본은 사죄하지 않아야 하며, 반대로 위안부제도에 대한 군 관여와 인권침해를 인정한 고노 담화를 발표한 것이 문제라는 주장이 주류화되고 있는 것이다.

2013년 5월에 하시모토(橋下徹) 오사카 시장이 어느 나라에서나 군대에는 위안소가 있었고 일본만이 나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취지의 발언(『아사히신문(朝日新聞)』 2013.5.13)을 하고, 2014년 1월에는 NHK 모미이(籾井勝人) 회장이 “어디가 나쁜 것인지” 라는 동종의 발언(『마이니치신문(毎日新聞)』 2014.1.26)을 한 것은 그 한 예에 불과하다. 원래 우익과 자민당 의원은 그러한 내용을 반복해서 언급해 왔고, 2012년 9월 아베 신조(安倍晋三)는 총재 출마 표명 공약에서도 자민당 총재가 되었을 때의 텔레비전이나 신문 발언에서도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 담화를 재검토한다(見直す)고 반복해서 말하였다. 이윽고 2014년 3월에는 “담화 작성의 경위를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고노 담화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언동을 보면 젠더 백래시가 재차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그동안 줄곧 위안부제도에 대한 반성을 담은 다양한 기념비가 세계 각지에 세워지자, 일본의 정치인과 언론은 그것을 비판하기만 하고, 주체적으로 자신들의 가해행위를 기억하며 반성하는 모습은 없었다. 물론 일부의 양심 있는 학자와 위안부 문제를 당사자 주권의 관점에서 해결하려는 시민단체의 운동은 있으나 그 영향력은 미약한 실정이다. 이른바 백래시파의 주장이 주류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998년부터 2009년의 백래시에 대해 적절히 반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4년 단계에서도 역사인식 문제로서 재연되고 국제 대립이 격화하였다. 국제적으로는 아베정권은 극우(extreme right), 강력한 국가주의(strong nationalism), 역사수정주의(revisionism) 라는 표현이 붙여지기까지 했지만, 일본에서는 그 인식은 공유되지 않고 오히려 한국과 중국에게 공격받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애국적으로 되어 군비를 증강하고 강한 국가가 되어야 한다, 반론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국정의 우경화를 배경으로 그것이 야스쿠니신사 참배, 남경대학살 부정,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돌변한 태도, 강제연행 부정 등으로 되어 계속 나타나고 있다. 중국, 한국, 북한과의 긴장을 높이고 일본국민의 국가의식을 부추겨서 국민의 지지를 얻어내려고 하며 그 일부로서 젠더프리를 희생물로 하는 백래시를 행한 것이다.

국제법학자인 아베 히로미(阿部浩己)는 “일본에서 위안부 문제는 전쟁 중에 일어난 일로서 말하기 쉽지만, 국제 사회에서는 다르다”고 논하며, 국내와 해외의 관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로서 “전후 일본은 안전보장조약을 맺은 미국의 사실상 보호 아래에 있었고, 아시아 여러 국가와 정면으로 마주 대한 일도, 전전의 정권에 대한 철저한 부정이나 과거 청산을 하는 일도 없이 와버렸다”고 논하였다.(『마이니치신문』 2014.3.27)

젠더 시점으로 현대 일본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서 정책과제를 지적한다면, 그것은 ‘(임금, 고용형태, 가사·육아·간병 부담, 결혼/비혼 등)남녀 간의 격차’와 일본군‘위안부’ 문제로 대표되는 ‘인권 의식의 낮음’, 성폭력 만연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일본사회에서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는 문제는, 전후 평화주의와 민주주의의 후퇴, 자이툰카이(在特会)로 대표되는 배외주의의 심화(아시아 멸시관), 소수파 의견과 사회적 약자의 무시 등을 지적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남녀공동참획, 페미니즘과 젠더평등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더욱 이해가 되어야 하고, 그것이 학습되고 구체적으로 정책에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젠더 연구자나 운동가 측이 이들을 알기 쉬운 말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백래시의 사상에 대한 반론을 명확히 하고 비판의 시점을 확립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이념에 입각한 학교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반폭력주의 사상을 넓혀가고 비폭력의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젠더 연구자나 교육자들의 역할과 책임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参考文献】

-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편저(2017)『일본군‘위안부’기록물 발굴·정리·해제사업-일본 국회 회의록(1948-2002)의 ‘위안부’ 관련 논의 해제·번역(상)(하)-』여성가족부
 浅井春夫(2006)「性教育・男女平等バッシングの背景と本質」浅井春夫他著『ジェンダー / セクシュアリティの教育を創る』明石書店、p.39-41
 安倍晋三(2006)『美しい国へ』文藝春秋、pp.202-203、p.211、pp.215-217
 井上輝子(2011)『新・女性学への招待』有斐閣、p.40、pp.53-54
 内田ひろ子他編『女性情報 249号』(特集「06ジェンダー関連全報道」「教育はいまー教育基本法改正案衆院通

- 過)パド・ウィメンズ・オフィス、2006年12月号(他、2004年12月号や2005年12月号)
- 北田暁大ほか著(2006)『戦後日本における「バックラッシュ」的言説の社会的研究』2005年~2006年度の科研研究報告書
- 小池百合子・根本匠・山谷えり子・世耕弘成「首相補佐官かく語りき」『正論』2006年12月号、pp.108-109
- 笹山晴生・佐藤信・五味文彦・高埜利彦ほか10名(2015)『詳説日本史B』山川出版社、p.365
- 全国歴史教育研究協議会編(2014)『日本史用語集 A・B共用』山川出版社、p.373
- 石橋(2011)「大阪府A市立B中学校における「性教育バッシング」の事例」『日本近代学研究』第33輯、韓国日本近代学会
- _____(2012)「日本における地方自治体のジェンダー行政とバックラッシュの流れ—1996年から2009年までの4つの時期を中心に」『日本近代学研究』第36輯、韓国日本近代学会
- _____(2015)「日本の「ジェンダー・バックラッシュ」勢力の言説とその特性—性(性別・性の多様性)を中心に」『日本研究』第23集、高麗大学校日本研究センター、pp.95-96
- 高橋史朗(2002)「ファロスを矯めて国立たず」八木秀次編著『教育黒書』PHP研究所、pp.96-114
- 竹信三恵子(2005)「やっぱこわい? ジェンダー・フリー・バッシング」木村涼子編『ジェンダー・フリー・トラブル』白澤社、p.23
- 館かおる(1998)「学校におけるジェンダー・フリー教育と女性学」『女性学』Vol.6、日本女性学会、p.11
- 橋本俊昭(1998)『日本の経済格差—所得と資産から考える』岩波書店
- 俵義文(2005)『あぶない教科書NO!—もう21世紀に戦争を起こさせないために』花伝社、pp.60-64
- 中村政則(2010)『戦後史』岩波書店、pp.262-269
- 西尾幹二・八木秀次(2005)『新・国民の油断—「ジェンダーフリー」「過激な性教育」が日本を亡ぼす』PHP研究所
- 日本女性学会ジェンダー研究会編(2006)『Q&A男女共同参画 / ジェンダーフリー・バッシング—バックラッシュへの徹底反論』明石書店、p.3
- 林博史・俵義文・渡辺美奈(2013)『「村山・河野談話」見直しの錯誤—歴史認識と「慰安婦」問題をめぐって』かもがわ出版
- 林道義(1999)『フェミニズムの害毒』草思社
- _____(2005)『家族を蔑む人々—フェミニズムへの理論的批判』PHP研究所
- 水谷英夫(2008)『ジェンダーと雇用の法』信山社、p.159
- 民主教育研究所「ジェンダーと教育」研究委員会編著・発行(2010)『ジェンダー平等の豊かな社会をめざして—性教育・ジェンダーバックラッシュをのりこえる』
- 文部科学省(2014)『高等学校学習指導要領解説 地理歴史編』改訂版、教育出版
- 八木秀次「安倍総理、教育再生への初志貫徹を」『正論』2006年12月号、pp.115-116
- 脇田修・大山橋平ほか14人(2016)『日本史B』実教出版社、p.323、p.358
- 『朝日新聞』2001.9.4/ 2013.5.13/ 2013.10.10/ 2015.6.25
- 『毎日新聞』2014.1.26/ 2014.3.27

논문투고일 : 2019년 06월 14일
 심사개시일 : 2019년 07월 17일
 1차 수정일 : 2019년 08월 06일
 2차 수정일 : 2019년 08월 12일
 게재확정일 : 2019년 08월 16일

 <要旨>

일본의 우경화 정치에 따른 “Gender Backlash” 담론 연구

- 학교교육 현장을 중심으로 -

石 橋

본 논문은 일본의 우경화 정치에 따른 ‘젠더 백래시’ 담론 가운데 학교교육 현장의 사례내용을 중심으로 담론을 조사 분석하여 그 영향을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젠더시점과 ‘젠더 백래시’ 문제의 관점으로 일본의 우경화를 지탱하는 우경화 정치와 교육과의 관련성을 밝혀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더 나아가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한일관계 및 한일양국의 젠더평등에 미치는 영향과 학술적 정책적 의미 즉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1990년대 이후의 일본의 우경화와 함께 젠더 백래시 움직임도 진행되어 왔다. 일본사회의 젠더 백래시 현상과 백래시파의 주장과 논리는 보수사상의 내셔널리즘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특히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담론과 교과서 기술문제는 일본의 대표적인 백래시 사례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문제는 일본의 정치 우경화가 그 배경에 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사건·사례 중에는 한일관계의 정치외교, 역사인식 문제와도 깊이 결부되어 있다. 특히 젊은이들의 의식과 태도를 형성시키는 요소로서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본론 4장에서는 백래시파에 의한 교과서 공격의 사례로서 ①가정과교과서와 ②역사교과서의 일본군·위안부’ 기술문제에 관한 담론과 그 영향에 대해 고찰하였다.

 A study of Discourse of “Gender Backlash” along with Japanese Rightward Shift
in Politics

- With Special Attentions to Classroom-Based Educational Environments -

Seok, Hyang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impact of the discourse by examining and analyzing the case contents of the school education site among the ‘Gender backlash’ discourse based on Japan’s rightist politic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over the relevance of the rightist politics and education that supports Japan’s rightward shif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Gender and ‘Gender Backlash’ issues. Furthermore, through this research, we are going to find out the impa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and on the Gender equality between Korea and Japan, and the implications of the academical and the meaning of policy, namely the implications.

Along with Japan’s rightward shift since the 1990s, the Gender backlash movement has also been underway. The Gender backlash phenomenon in Japanese society and the claims and logic of the Backlash faction are deeply related to the nationalism of conservative ideas. Especially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discourse and Japanese textbooks description problem is one of the backlash cases. This problem lies in the background of Japan’s rightist politics. And among the specific affairs and cases, it is also deeply related to the political diplomacy and history recognition of Korea-Japan relations. Education is especially important as a factor that shapes the consciousness and attitude of young people. In chapter 4, It is considered the point ① home economics text books and ②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of Japanese history textbooks in discourse and its impact on description issues, as an attack case of the textbook by Gender backlash faction.